

59개 북한사찰 단청지원 합의

조계종·조불련 3월말까지 28곳, 나머지 내년에



조계종 사회부장(양산스님 오른쪽)과 조불련 황병준 부위원장이 북한 사찰 단청지원 합의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이하 평불협)에 이어 조계종이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과 북한 단청불사 지원을 서면 합의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련, 민주본)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21일 북경에서 조불련 황병준 부

위원장과 남북불교회담을 갖고 “북측 지역에 소재한 59개의 사찰 144개동과 민족문화재의 단청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2003년 3월 말까지 1차로 28개 사찰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2004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단청 기술의 상호 교류와 전수를 위

해서 시범사찰을 지정하여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이를 위해 조불련은 남측대표단(단청기술자)을 평양으로 초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서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과 조불련 황병준 부위원

실사단 10여명 2월 방북, 일정 구체화

평불협 “필요때만 조계종과 협의” 공동추진

장이 두 단체의 위임자로 각각 서명했다. 조계종은 2월 10여명의 실사단이 방북하여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수립하고, 4월 시범 사찰 작업과 금강산에서 남북 학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및 단청관련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체 단위면적 123,715㎡에 투입될 안료 47,260㎏에 필요한 예산은 2003년 대북사업으로 책정된 2억원과 특별예산을 추가로 책정할 방침이다. 조계종은 이 외

에도 올말이나 대동문 등 사적지 단청 사업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평불협은 8일 지난 해 12월 2일 북한에서 조불련 박태화 위원장과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이 서명한 합의서를 공개하고 “조계종이 합의한 것과는 별도로 단청불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할 수도 있다”고 말해 공동 추진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본 한 관계자는 “어떤 단체나 중단도 참여가 가능한 상태”라고 전제했으나 “장구 단청화를 위해선 조계종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평불협이나 조계종 누구도 아직 승인요청을 해 오진 않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자칫 진행 주체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는 해방 후 400여개 사찰 있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현재 61개 사찰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nia.com

불교생태학 총본산 만들겠다

인터뷰 홍기삼 신임 동국대학교 총장

9일 동국학원 제 189회 이사회에서 동국대 제15대 총장에 선임된 홍기삼 교수는 “조계종립대인 동국대가 치열한 대학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를 선도하고 불교학을 응용한 특성분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유일의 불교생태학 총본산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3월초 동국대 15대총장 취임과 함께 학교의 모든 시계를 2006년 개교 100주년에 맞추겠다고 밝힌 홍 교수는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06년을 기대해도 좋다”는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06년에는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지나온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연구, 조직, 편제, 비전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시점에 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화합의 마음을 모은다 해도 시간이 촉박하다. 낡은 틀을 벗어버리고 합리적 이성이 자연스럽게 소용되는 멋진 대학으로 태어날 것이다.”

“학교의 산적한 미해결 과제 중 하나가 불교병원 개원문제인 것 같다.

“총장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학교규모가 방대해졌을 뿐 아니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종립대의 위상 그리고 교육과 연구

“병원 개원 문제는 학교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비논리적, 비전문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적정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컨설

“불교문화 더 빛나게 챙기겠다

모든 종교 똑같은 거리 유지 정책 펼 것”

노 당선자, 신년하례법회서 밝혀

◇노무현 당선자 발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8일 열린 한국 불교종단협의회와 민주당 불자지원 모임인 연등회의의 신년하례법회에서 불교계 최대현안인 북한산관동도로, 불교문화, 종교정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노 당선자는 북한산관동도로 문제에 대해 “지난번 조계종 스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검토 약속을 했으나 당선된 뒤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 이 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합리적으로 일이 잘 되도록 꼭 챙기겠다”면서 “국토에 서린 민족정기, 환경, 불교 수행환경, 국민편의 등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고속철도 구간인 금정산·천성산 관동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거 때 부산 금정산을 관통하는 고속철도도 다시 검토하겠다

고 했는데, 아직 취임 전이어서 말하기 그렇고 차츰 챙기겠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앞으로 문화의 중심인 불교문화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훼손되지 않고 더욱 더 빛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불교계, 북한산 관동도로 대안노선 요구

“그렇게 하면 불교계도 좋아하고, 모든 국민이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종교관련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리를 두고 모든 종교를 존중할 것이며, 챙길 일이 있으면 다 함께 챙기겠다”며 종교계에 대해 각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무현 당선자내외는 불교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선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서울외곽도로의 북한산 관동문을 반대해 온 조계종 공동대책위와 환경·시민단체들은 일단 노 당선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가 제시한 민족정기, 환경, 불교 수행환경, 국민편의 등 네 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시킬 대안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대안 노선에 대한 합리적 제안과 대국민 설득 작업 등 불교계 전체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시점이다.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 어떻게 되나
조계종 총무원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안노선 민·관합동 선정위원회’를 설치해 대안노선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현 노선의 백지화와 진행중인 공사의 전면중단도 거듭 요구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대안노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 당선자의 현 노선 백지화 공약에 따른 조치다.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수경스님은 “노무현 당선자의 발언으로 대안노선 검토 가능성이 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노 당선자가 불교계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백지화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nia.com

연구·조직·편제·비전 종합 재검토 시점

불교병원 개원 전문가 자문 후 최종 결정

가 본질인 대학의 고유기능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학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의형이나 규모보다는 학문적 특성을 살려 가겠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독창적인 학문특성화를 이룬 대학이 없다. 동국대가 불교종립대 특성을 살려 불교생태학(budcology)의 총본산을 표방하겠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태학은 철학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 불교사상에 바탕을 둔 생태학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학자들을 육성하여 불교생태학이 세계로 진출 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불교생태학은 21세기 인류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미래학문이며, 젊은이들에게 큰 관심을 줄 것이다.”

“동국의 미래 청사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다.

“종립대에서 선학과 폐교 위기에 직면했다. 학부제에 대한 개선의견은? “학부제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비능률적 교육시스템이다. 대학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제도라 하더라도 교육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면 비효율적이다. 학부제 시행은 학과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일산의 제3캠퍼스 이전문제도 특정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 해당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nia.com

약력 1940년 충북 청주에서 출생한 홍기삼(법명 다정(茶亭)) 교수는 젊은 시절 불교에 심취, 불교학에 입학했다. 이후 국문과로 전과해 66년 졸업했다. 홍 교수는 한국문학이론의 토대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91년 한국불교문화연구회를 창립, 초대회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불교문학의 이해> <불교문학의 선서> <문학사의 기술과 이해> 등 16권이 있다. 교수사회에 높은 신뢰를 쌓아온 홍 교수는 교내 인문계열 최우수 교수로 선정될 만큼 학문적 내공도 탄탄하다. 겸손한 성격에 논리적이며 합리적이라는 평이다.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정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니다.기사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